

한전, '장기송변전 시설사업계획' 확정

오는 2010년까지 전국의 초고압·송전선로가 현재보다 9,500km 이상 늘어나고 초고압 변전시설도 지금의 411곳에서 총 684개소로 70%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송변전 시설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10년 동안 전력계통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한전은 우선 전국의 송전선로 공장구간을 현재의 2만3,015km에서 3만2,590km로 확충해 전력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압별로 현재 286km에 불과한 765kv선로를 1,193km로, 345kv선로는 6,665km에서 8,944km, 154kv선로는 1만6,064km에서 2만2,453km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내 154kv급 이상 초고압 송전선로는 총연장 2만3,015km에서 3만2,590km로 42% 이상, 765kv선로는 지난해 1단계 사업 완료 이후 10년만에 공장구간이 4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한전은 전국 변전소의 경우 현재 345kv 38곳, 154kv 373곳 등 총 411곳이 가동중이지만 앞으로 원자력, 화력 등 발전설비 확충계획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273곳을 추가로 신설해 전체 가동 변전소수를 684곳으로 늘릴 방침으로 전압별로는 345kv 20곳, 154kv 247곳이 새로 건설되며 765kv는 오는 2002년 신서안·신안성변전소가 국내 처음으로 준공되는 것을 비롯해 10년간 신가평, 신태백, 신김천, 신고리 등 모두 6곳에 건설될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765kv선로는 km당 평균 34억원, 345kv는 12.1억원, 154kv는 5.7억원이 소요돼 전체적으로 9조4,831억원(2000년 경상가격기준)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변전소 건설은 765kv가 1기당 평균 1,800억원, 345kv가 총 5조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 14조5,00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농사용 전기설비 안전대책 추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물기와 습기가 많은 주변여건으로 부적합한 전기설비를 방지하는 경우 다른 전기설비에 비해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농사용 전기설비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러한 농사용 전기설비의 전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농사용 전기설비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및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 본격적인 영농기(4~5월) 전에 농사용 수용가 13만여호에

대한 전기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전기안전 활동기간 중에는 누전차단기 설치·동작 여부, 전선피복 손상 여부, 접지시설 설치 여부 등 사용 중에 감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집중 점검해 부적합 전기설비가 있을 경우 한

국전기안전공사가 봉사자제로 무료 개·보수해 준다.

안전공사는 특히 농사용 전기설비가 집중 분포돼 있는 지역에 이동지사를 설치·운영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전기안전 활동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국 노후변전소 설비보강공사 연차적 시행

올해부터 3년간 전국 노후변전소에 대한 설비보강공사 54건이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한국전력 송변전건설처에 따르면 한전은 10년 이상 장기사용으로 수명이 다한 노후 변전설비를 정비·교체키로 하고 앞으로 3년동안 총 422억 7,500만원을 투입, 54건의 설비보강공사를 시행키로 했다.

변전소 설비보강사업의 내용은 노후배전반 교체 및 정비공사, 주접지망 보강공사, 가공지선 보강공사, 154·345kV 모선보강공사, 각종 케이블 교체공사 등이다.

사업시기별로는 우선 올해의 경우 부산사업소관내 변전소들에 대한 장기노후배전반 교체공사(사업

비 30억원)를 비롯해 수원변전소 주접지망 보강공사(15억원), 신울산변전소 배전반 정비공사 등 23건이 시행돼 이들 사업에 154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내년에는 충추변전소 옥외설비 GIS화공사(사업비 40억원)와 용인변전소 GIS 설비화공사(45억원), 부산변전소 배전반 교체(30억원) 등 총 172억5천만원 규모의 15개 공사가 예정돼 있다.

한전은 또 2003년에도 부산사업소 관내 변전소 배전반교체(30억원)와 수원변전소 주접지망 보강(15억원), 서울변전소 환경정비 및 덕트공사(10억원) 등 96억2,500만원 규모의 16개 공사에 착수키로 했다.

한전, 배전선로 사고예방 요청

한전이 배전선로 파급사고를 예방키 위해 일반 고압고객에게 설치한지 오래된 계기용변성기(MOF)의 자진 교체를 요청하고 나섰다.

MOF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시설교체를 의무화하는 '검정연한'이 없기 때문에 고장이 나기 전까지

는 기존 제품을 바꾸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설비 노후화로 인한 배전선로 파급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전은 이에 따라 설치한지 14년 이상 지난 노후 MOF를 자발적으로 교체, 배전선로 파급사고를 미

연에 방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반 고압고객에게 전달했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노후 MOF의 자발적 교체를 당부한 것은 배전선로 파급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 공문에 비록 강제

적인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수용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배전선로 파급사고는 총 188건으로 이 중 MOF 고장에 의한 것은 17.6%에 해당하는 33건이었다.

전기기자재 제조업체들 허덕인다

공공공사 조기발주등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전기기자재 제조업체들이 수요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내산업을 부양키 위해 공공공사를 상반기에 조기 발주하고 중소기업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전기기자재의 주요수요처인 건설업등의 경기가 아직 가시적으로 호전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기업체종사자들은 이같은 경기 침체가 2/4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업계 전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배선용 차단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한 경영

주는 “건설업등 주요 수요처의 경기가 아직까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난해 보다 매출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하고 “특히 전기기자재의 경우 건설업중등의 경기가 정상화 되더라도 상당기간이 지난 후 수요가 일어나는 업종 특성상 2/4분기에도 현재와 같은 수요부족은 여전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기업들의 경영난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국내 전동공구 가격 들쭉

전동공구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

최근 국내 전동공구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들은 지난해 반영하지 않은 가격 인상분을 포함해 조만간 3~5% 이내에서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미 LG산전은 가격을 인상했으며 계양전기는 3월중으로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보쉬, 아이게 등

환율의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수입업체들도 이미 공구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전동공구 가격 인상은 올해들어 유로화와 달러의 환율이 많게는 50%까지 급등했으나 수입 업체들이 환율 급등폭을 시장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었으며 국내업체들의 경우에도 제살까기식 경

쟁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 원가회복 차원에서 인상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가격 인상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충전식 전동공구나 드릴류 보다는 전문가용 품목이 가격인상을 주도할 것으로 보

인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업체의 경우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원화에 대한 달러나 유로화의 환율이 안정되지 않는 한 가격인상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밝혔다.

한전, 올 송배전자재 1조5,699억으로 책정

한국전력은 올해 송배전자재 물자 구매규모를 지난해 구매실적보다 1.5% 증가한 1조5천699억 원으로 책정했다.

한전은 올 한해 소요되는 물자규모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관련 제조업체의 계획생산을 유도키 위해 '2001년도 송배전자재 물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금년도 물자수급 대상품목은 송·변·배전 및 통신용 자재 등 총 720개 품목으로 저장품목 222개, 비저장품목 400개, 일반외자품목 98개다. 또 신규구매 규모는 저장품목이 6천154억원, 비저장품목 9천655억원, 일반외자 98억원으로 총 1조5천430억원이다.

송배전자재 구입제품 중 중소기업 제품은 8천 316억원으로 전체 구매계획의 52.97%를 차지한다.

한전은 “이번 물자수급계획수립에 따른 각 품목별 물량은 지난해 소비실적과 올해 예산규모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단가는 지난해 계약단가에 물가상승률 3%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와 함께 일반외자를 제외한 2002~2004년까지의 중기물자구매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의 중기 물자구매계획에 따르면 2002년도에는 저장품목 222개, 비저장품목 383개 등 총 605개 품목, 1조4천538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3년과 2004년 물자구매규모는 각각 1조4천 872억원, 1조5천48억원이다.

중고엔진 발전기 유통 비상

중소형 비상용 발전기 시장에 중고엔진을 장착한 발전기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망된다. 이 제품은 가격이 정품 엔진을 사용한 발전기의 40%밖에 안되며, 대부분이 단순

조립품으로 엔진과열시 화재의 위험성까지 안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이들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대형 유명 제조업체의 상표까지 도용해 제품을 유통시키고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속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전기 제조업체 B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포항의 모 공공기관으로부터 전기안전공사의 비상용 발전기 사용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항의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외함의 상표만 B사 것일뿐 엔진에서부터 전 부품이 중고품을 사용한 제품이었다.

D사의 경우는 소비자의 A/S 문의와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자체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조달청과 대형 건설업체는 발전기 단가계약시 엔진제작사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을 명시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이같이 중고 엔진을 사용한 발전기가 유명 업체의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데는 소비자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상용 발전기의 주 소비자인 건물주들이 평생 한 두번 가동하는 비상용 발전기를 신축 건물 준공검사 시 구색을 맞추기 위한 품목으로 생각하고 값싼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일부 건물주는 준공검사가 끝나면 아예 발전기를 철수하기도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비상용 발전기는 정전시 12초내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 시설이며, 특히 건물화재시 비상용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방화수를 사용할 수 없어 대형 화재로 번질수 있다”며 건물주들의 안전불감증을 꼬집었다.

전선업체 매출 둔화될듯

전선 수요 감소에 따라 국내 전선업체들의 2001년 영업환경은 그리 밝지 못하며 전력선, 일반 통신선, 광케이블의 판매가 위축돼 LG전선, 대한전선, 일진, 희성전선, 극동전선, 대성전선 등 6개 전선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8%와 6.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도 광케이블의 매출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전선 부문에서의 수익성 악화로 전년 대비 6.5%라는 소폭 성장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광케이블 설비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는 2002년의 경우 매출액은

11.2%, 영업이익은 27.9%의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며 “전선4사의 주가상승도 올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 LG전선, 희성전선은 장기매수를 유지하고 극동전선, 대한전선은 장기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선업체들의 유일한 주가 재료로 작용해 온 광케이블 내수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이들 업체들의 주기는 당분간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건설경기 침체로 전선 수요 급감

전선유통업체들이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전선 수요가 급감하면서 '98년, '99년 IMF때 보다 10%에서 많게는 30%이상 급격히 매출이 감소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에 건축을 착공한 건물들이 있어 전선 물동량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대우건설, 동아건설 등 건설대기업들의 부도로 인한 건설경기 냉각으로 신규 발주물량이 없어 전선수요가 급감, 유통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 전선유통업체들이 부도 위험 때문에 마진율이 낮은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것도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점포를 운영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마진율이 높은 어음을 받으면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며 "어음을 잘못 받아 부도가 나면 한해동안 헛 장사한 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마진율을 적게 보더라도 현금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영상태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을 봐서 올해 하반기 정도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선업계가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 경영전략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이 잦은 물량의 입찰에 치우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광고를 통한 일회성 고객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